



# 9월 지육시세는 3,70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미음 모돈계열팀

매년 8월은 초순은 휴가철과 여름의 한복판에서 가장 무더운 열대야를 거치면서 출하두수가 줄어들고, 7월말 하락하던 돼지고기 가격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반복되었으니 특히 무더운 열대야를 거치면서 돈사에서 사육 중인 모돈과 비육돈의 열사병으로 폐사가 증가하고 오히려 사료 섭취량도 평소의 80%대로 줄어들면서 성장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서 8월 첫주의 출하두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당초 전망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년에는 8월 초순부터 돼지 출하두수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돼지가격도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8월 둘째 주까지 출하두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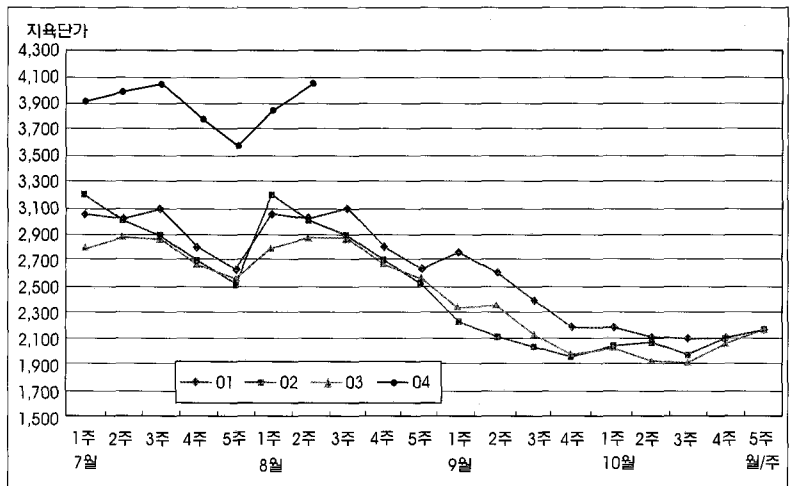
무더위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성장 지연은 결국

출하두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돼지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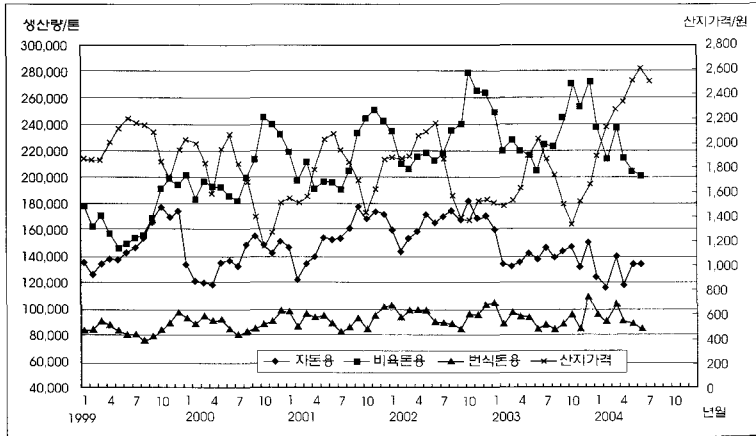
이에 따라서 돼지가격도 예년과 같은 하락세를 보이기 보다는 완만한 하향 안정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사육두수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2개월령 미만 사육두수는 예년에는 전년 9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전년 12월을 최저로 하여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돼지 사육기간을 고려하면 다음해 5월의 출하두수를 최저로 하고 다시 6월부터 출하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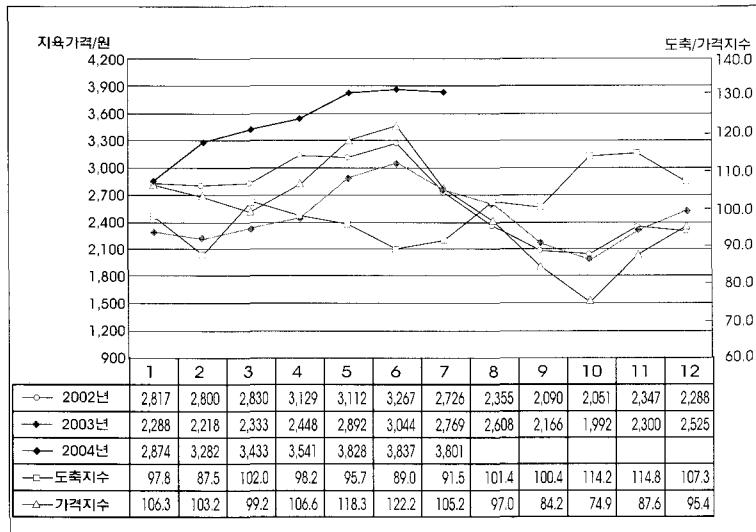
<그림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2〉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그 영향으로 7월부터 도매시장 돼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은 전년 9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금년 6월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후 사육기간 5~6개월을 지난 후 판매체중에 도달하는 것을 볼 때 11~12월까지 비육돈 출하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서 금년은 돼지 출하두수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돼지가격 또한 고돈가를 지속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월의 경우 여름철 성장지연으로 출하가 지연된 돼지와 정상적으로 성장한 돼지가 함께 출하되면서 일시적인 출하두수 증가와 돼지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의 자돈 사료생산량을 보면 5월 보다는 약간 증가하여 134,609톤을 기록하여 9월 출하두수는 8월 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육돈이 사료섭취량을 회복하고 성장 지연돈의 성장이 회복되면서 출하지연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출하두수는 점차 증가하고 돼지가격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소비 측면에서는 9월말 추석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인하여 소 갈비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돼지 갈비와 전지가 채울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돼지가격도 예년과는 다르게 돼지 갈비와 전지 부분육 값이 주도하면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석을 앞둔 돼지 갈비와 전지의 수요에 힘입어 9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8월 보다는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지육단가가 3,700원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양돈**